

2018년 3월 7일, 남원읍 의귀리 의귀리경로당, 문순덕(김은정·정이슬) 조사.
양성민(남, 1938년생, 남원읍 의귀리)

- 줄거리: 밤에 새카만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신은 크기가 매우 컸다. 귀신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죽는다고 한다. 귀신이 나타나면 움직이지 말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살 수 있다.

[조사자] 그슨새, 도체비는 어떻게 나타나?

[제보자] 그슨새 도체비? 본 사람도 엊고 아무도 엊어. 본 사람이 없어서 들을 뿐이지. 나타나면 움직이지 말아야 산덴 하는 사람도 있고.

상상이지. 도체비 귀신은 어떻게나 큰지 땅에서 이렇게 가당 헛게비불인가 하민 사람이 쳐다봐야 그슨새라. 가달 벌겨 불민 사람이 밑으로 지나가믄 죽는다 이거여. 그래서 무섭게시리 한 거고.

그슨새는 새카망한 걸로 탁 하게 길로 벌경 누가 가당 겁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가달이 높았겠지. 그 밑으로 사람이 지나가믄 죽는다는 그런.

[조사자] 완전 큰 도체비를 그슨새로?

[제보자] 믿으나 마나 옛날 얘기인데 그 말 골아불민 우리 들을 적엔 놀레 갓당 집에 갈 때도 그 무서운 말을 굽은단 말이여. 집에 못 가고 그래낫어.

- 핵심어: 그슨새(귀신), 도체비(도깨비)